

연중 제24주일

기도서 435면 (B해)

제1독서 : 이사 50, 5-9a

제2독서 : 야고 2, 14-18

복음 : 마르 8, 27-35

숨정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하고 대답하셨다.” (마르코 8, 29).

강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최 상범 신부 / 신태인 주임

언젠가 학생들의 피정 때에 '장님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두 명씩 짝이되어 그중 한 명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장님이 되고, 한 명은 길잡이가 되어 길도 걷고 물건들도 만지는 교육이었다.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은, 새삼 볼 수 있다는 은혜와 장애자의 아픔, 길잡이의 고마움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직결되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것이기에, 잘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부족함은 진리를 살아 가는 데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오늘 복음의 물음은, 편리해지고 부유해진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이미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 익숙해져버린 교통시설, 컴퓨터, 재물과 권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욕망들은 타협과 협상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표현 가운데는, 각종 희생을 도맡아 하는 것 위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가 있다. 우연히 닥치는 교통스런 희생이나 죽음과는 달리 자발적인 헌신과 봉헌은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기에, 과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참된 인간의 가야할 길을 확연히 보여 주는 것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다 닥친 실패나 고통과는 거리가 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빠스카는, 그 자체는 물론 특히 부활 사건으로 더 더욱 인생살이의 이정표요 해답이 되는 것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저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내 뜻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는 것이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살아 본 뒤에야 평소에는 잘 못느꼈던 눈에 대한 고마움, 장애자의 답답함, 안내자의 고마움, 장애자에 대한 따뜻한 우정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도 중심과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리

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과 그 성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뜻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분들의 삶을 높이 현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기 위함입니다.”

박정일주교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도 유향검을 비롯 윤지충, 권상연, 동정부부 유중철, 이순이 등 호남지역 순교자 5위에 대한 시복·시성과 치명자산 성지개발에 전주교구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신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순교 선열들의 기도하는 삶과 봉헌하는 삶을 배워, 후손된 효성으로 정성껏 기도를 바치고 금융재와 단식 재밋 희생에 바쳐 그로 인해 절약된 금액을 성역화사업에 봉헌하며 전례와 교육에 적극 참여, 순교 선열들의 뜻을 오늘에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전주교구는 순교자들의 피로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 출중한 신앙의 증거자들을 배출한 남방교회의 요람지다.

정문호, 조하서, 손선지, 이명서, 정원지, 조윤호 등 7위의 순교 선열들이 시성의 반열에 올라, 전세계 교회에서 공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해박해 때 전주서 참수 치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 내외종 형제, 신유박해 때 옥시형을 당한 유향검과 그의 아들 유중철, 이순이 동정부부가 아직껏 시복 반열에도 오르지 못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는 결혼해 4년을 함께 살면서도 동정을 지켜 전주가 낳은 “한국의 진주”로 불리우며 추앙받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들 전주교구내 순교 선열 5위에 대한 시복 시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치명자산 성역화사업에 5만불을 보내왔고 김수환 추기경이 5천만원 독일의 마인쯔 교구에서 1천여만원을 보내왔다.

우리도 순교 선열의 시복·시성을 기도하고 성역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숨정이 산책



전주교구 시복시성 청원 대상 순교자 ①

(1) **윤 지충(바오로)** : 1795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현, 충남 논산군 벌곡면 도산리 장고)에서 아버지 윤경과 어머니 안동 권씨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이 인정 받았던 양반이었으며 그 역시 25세 때인 1783년 봄에 진사 시험에 합격한 높은 학문의 소지자였다. 윤 지충(바오로)은 1784년 가을 서울 명례동의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실의」와 「칠극」이라는 두 권의 천주교 서적을 읽고 하느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대부 대군이시며 우주만물의 변화, 모든 인생살이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삶의 이유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던중 139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수 많은 환난을 예견하면서도 유교 사회의 죄인이 될지언정 천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유교식이 아닌 천주교식 장례를 치루었다. 그는 예상대로 전주감영에 압송되어 거룩한 죽음을 맞는다. 그는 심한 매질로 배교를 강요하는 전라 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만약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1791년 12월 7일 그의 목을

장대에 꽂아 사람들을 경각 시키게 하였으나 이곳으로 부터 일어난 슬한 기억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권 상연(야고보)** : 1751년 진산 장구동에서 태어난 양반이었으며 앞에 소개된 윤 지충과는 고종 사촌간이다. 윤 지충으로부터 「천주실의」와 「칠극」이란 천주교 책자를 받아 읽고 세례를 받았다. 참수 동기와 과정은 윤 지충과 같다. 그 역시 1791년 12월 7일 오후 3시 윤 지충과 함께 참수 되므로써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는 혹독한 매로 기력이 꺾였으나 망나니의 칼날에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를 애절하게 불렀다. 두 순교자들의 머리는 5일 동안 장대 끝에 꽂혀 있었고 9일 만에 야 장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어 두 시체가 조금도 부패치 않게 하시고 금방 참수된 것처럼 붉은 선혈을 보게 하시어 외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질사하여겨 무죄를 주장케 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입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서와 함께

18. 이스라엘의 사회구조(D) : 민족

민족의 개념은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을 결속시키는 근거가 공통조상들이 아니라,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점차 생겨났다. 그래서 솔로몬왕이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나라를 열들로 세분화시켰을 때 이미 부족의 구분에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일민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시대 뿐이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민족 곧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쪽 유다가 남았으나 그 이후 한번도 한 민족으로 행세할 만큼 정치적 세력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구약성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보다는 신앙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다.

구약의 민족주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느님의 특별한 보배요, 사제들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홍해에서 구출되었다(출애 19, 5-6). 가나안의 민족들도 종교적 이유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속되어야 했다(신명 7, 1-11). 그들의 제단은 선택된 백성이 그 위에 새 제단을 쌓고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파괴되어야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나안 농경지를 탈취한 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였고, 최상명분은 항상 종교적이었다.

야훼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지상의 왕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전통이 구약성서에 깊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처음에 거절했다가 백성들의 간청으로 마지 못해 허락한다 1(사무 8장). 일단 왕이 선출되었을 때 고대 근동의 다른 전제군주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된다고 경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왕들은 대개가 다른 민족의 왕들처럼 폭군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왕권이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왕정제도 도입 후 왕은 반드시 야훼계로부터 선택되어야 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 이 사상은 세습제도에 의해 왕권이 전수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속되었다. 왕권은 하느님의 축복에 기반을 두고 그분과의 계약에 의해 지탱되었다 2(사무 7장; 시편 2, 89). 왕은 백성을 경신례에 참여시키고, 야훼 신앙의 증추역할을 담당한다. 다윗은 성전건축을 계획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느님께 바쳤다 1(열왕 전 8장). 수많은 군왕시편들은 왕이 어떻게 경신례에서 백성을 대표해 왔는지 보여준다(시편 20, 72; 110; 132; 144). 심지어 왕에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까지 부여된 정도였다 2(사무 후 7.14; 시편 89, 27).

이와같은 배경 속에서 하느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실현시킬 참다운 왕을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탄생하게 된다. 이 메시아 사상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각종사무기 종합취급점
복사기·팩시밀리·전자타자기·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및 사무기기 전품목 취급

(주) 신도리코 전주특약점
(주) 사표전자

신도 O A 상사

오 중원 (이오스딩) · 이 정운 (안젤라)
☎ 6-9666, 84-3678, FAX. 83-1836

나비커티

선경커티, 스완커티, 브라인드
홀딩도어, 홉팻션(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 걸 (엘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전주시 중앙동 2가 53-5(라자거리) 옆
☎ 82-2226, 86-5611

대중정육점

식육도산배(주문배달)
쇠고기, 삼겹살, 등심, 생닭

장 정숙 (테레사)

남부시장 채소야강 앞

☎ 사 84-1897
자 82-7385

교 구 소 식

※ 축/ 상지원, 양로원 (노후복지원) 축성식 : 14일 오후2시 30분 장소-상지원

1. 사제평의회 :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교구청
2. 혼인강좌 : 18일 (일) 오전 9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3. 젊은이를 위한 피정 : 17일-18일 장소-농협 연수원 회비-1,000원 대상-본당 모든 청년 접수-13일 (화) 까지 교육국 집결-당일 연수원3시(삼천동 시내버스-동암고앞에서 하차).
4. 성소자 피정 : 18 (일) 오전 10시~오후6시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2,000원 준비물-미사 도구 (성가집) 필기도구
5. 자연가족계회교육 : 13일 오전10시~12시(슬라이드 및 비디오교육) 가톨릭 센터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6. 꾸르실료교육 봉사자 연수회 : 10월 8일 (토)~9일. 장소-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1,000원. *참가 희망자는 본당 울뜨레야 간사, 주임신부님과 상의바람.
7.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자 모임 : 17일 (토) 오후2시~18 (일) 오후 3 시(1박 2 일) 장소-광주 수도회 본원 내용-기도, 면담. 대상-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이들 문의-(0652) 54-0041~3. 김천수 수사. 교통편-1.7.8.9.21. 101,108,110번 시내버스).
8. 주순변경 안내 :
정승현 신부 570-390 이리시 월성동 산180번지 성글라라봉쇄 수녀회 (0653) 52-6813.
니춘성 신부 302-330 대전시 중구 지족동 666번지 3동2반 군중사제관 (042) 823-4514.
경규봉 신부 502-260 광주시 서구 쌍촌동 1000-31 군인회관 (062) 33-6192.
김의철 신부 413-850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374-14 전진천주교회(0348)942-0174.

전주교구 5위순교자 시복 시성을 위한 9일 기도와 미사

● 일시 : 9월21~30일 오전10시 30분 ● 장소 : 치명자산 루갈다묘역

잠깐!

다섯분 순교자의 시복시성과 성지 개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88년 9월 순교자의 달을 시작하며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이 고장이 낳은 한국의 첫 순교자 윤 지중과 권 상연, 동정부부 순교자 유요한과 이루갈다, 호남의 사도 유 항검의 시복시성과 성지 개발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우리 전 교구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권장하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를 실천 하기에 열과 성을 다 해야 하겠다.

1.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 : (1) 이미 배부된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을 가정과 신심단체의 회의 전, 미사후에 공동으로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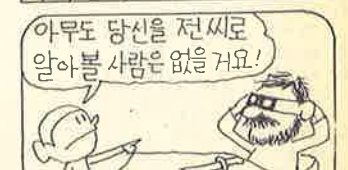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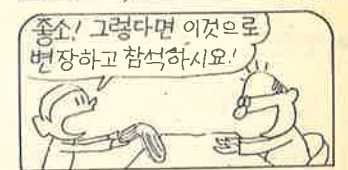
(2) 시복 시성을 위한 묵주기도(특히 고통의 신비), 십자가의 길(개인, 가정, 신심단체 별) 성체조배를 권장한다.

2. 금육, 단식 및 희생의 삶 : 매 금요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금육, 매월 4째 금요일에 단식을 권장하며, 기타 사치, 오락, 교통비, 회식비, 생활비 등을 절약하며, 이에 절약된 금액을 시복 시성과 치명자산 개발을 위해 봉헌한다.

3 순교자들의 삶에 대한 공부
한국 및 외국의 순교자들의 삶을 주제로한 서적 영화들을 읽고 보므로 그들의 삶과 사상을 배우고 성지를 순례하므로 그들의 삶을 나의 것으로 하기에 노력하고 특히 이번 순교 청원 대상자 다섯분의 삶은 필히 알고 묵상한다.

원래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무관한 사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참으로 이상스럽게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차츰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희의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힘차게 내디뎠던 신앙인으로써의 발길이 무겁기만 하다. 이런 우리에게 순교자들은 새로운 힘을 준다. 그들 역시 나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 번 열심히 살아보자!

요심이 (788) 김병오



□ 1분 명상
남을 칭찬한다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된다.
- J.W. 고테 -
명동피부과의원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박 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 화동 (프리스카)

현대미용학원
김 금순 (테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상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팅)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6417
관동로 전주백화점 → 다과교 중간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생기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위 상양 (프린치스코) · 김 병희 (글라라)
☎ 병원 4-1225, 지택 75-0034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원주농협 · 우신호텔 앞

정음·김제지구 본당소식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한봉섭
사무실 2-2044 사목회장 이면우
수녀원 2-3529

*고창

※ 9월은 순교자 성월: 굳은 믿음으로 순교정신을 살자!

1. 모임: 성모회, 다음주-대건회
 2. 공소미사: 오늘-심원(오후3시) 다음주-동혜원(오후3시)
 3. 9월구역모임: 13일-교촌구 14일-동촌구
 4.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주일날 11시
 5. 성지순례: 17일(토) 제천 배론성지및 고수동굴, 회비5,000원
 6. 교리경시: 오늘 초동부-오후2시, 중·고생-공식미사후
 7. 추석합동위령미사 봉헌: 25일(추석날) 아침6시, 낮10시
 8. 금주전례: 해설-양영희 독서와봉헌-손영란 김순옥
차주전례: 해설-이경태 독서와봉헌-김영삼 문준숙
- 지난주봉헌금: 205,770원 □ 교무금: 200,000원

*부안

사제관 83-3435 주임신부 안철문
사무실 2-2232 사목회장 육진수
수·유 2-3226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후 소강당에서 실시 지도수녀님 강수녀님
 3. 사목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밤9시
 4. 교리경시대회: 오늘 공식미사후 초동부 오후2시 중·고생 공식미사후 5. 중·고생연합회: 매월 2째주에 있습니다.
 6. 공소미사: 오늘 오후3시 광복공소 18일 오후3시 동용
 7. 공소회장단 재임명: (동용)김동원 (청호)김종태 (마포)이흥부 (신복)신영숙 (졸포)이대진 (만석)김익호 (백산)장금모 (돈지)김선로 (창북)이원양 (덕림)김계열
 8. 구역회: 9월14일 4,5,6구역 추석미사-위령합동미사 예물 접수함 9. 본당초소: 1,2구역
- 지난주봉헌금: 327,830원 □ 교무금: 234,500원

*수류

사제관 주임신부 문선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김태섭
수녀원

- ※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지난주목주기도6,019단 · 합계975,839단 · 예비자입교 89명 · 냉담자회개 104명
1. 수녀님 인사발령: 최 엔리지아수녀님 본원으로-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본당으로 오시는 박 바울리나수녀님을 환영합니다.
 3. 오늘의 모임: 모니카회-교육관에서
 4. 다음주 모임: 사목회 상임위원회-교육관에서
- 지난주봉헌금: 232,990원 □ 교무금: 170,000원

*시기동

사제관 32-3282 주임신부 안용기
사무실 2-2169 사목회장 신태근
수녀원 32-5777

1. 신우회: 공식미사후
 2. 꾸리아회합: 다음주일(18일)로 변경(추석관계로)
 3. 추석합동위령미사 예물접수: 2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4. 예비자 인도: 순교자성월중에 한사람씩 인도합니다.
 5. 예비자 교리: 매주 금요일 오후8시30분-신부님반, 매주일 공식미사후와 목요일 오후7시-수녀님반
 6. 철야성체 조배: 매주 수요일 실시하여 주세요.
 7.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사후 관심을 가집니다.
 8. 성당청소: 월-천상의 모후 토-가난한이의 모후
- 지난주봉헌금: 382,120원 □ 교무금: 488,200원

*신태인

사제관 4-2444 주임신부 최상범
사무실 4-2024 사목회장 송대영

1. 어린이 교리에 특별한 관심을: 어린이 교리-일요일 오후3시 어린이 미사-일요일 오후4시
* 가까운 공소 어린이 환영(옥단, 신기, 태인, 화봉)
2. 추석합동위령미사: 25일 10시30분 합동미사 봉헌으로 선열들을 기억합니다.(예물접수-사무실)

3. 예비자 모집: 9월 한달동안 정성껏 인도합니다.(예비자 카드 신청-사무실)
4. 일일일 단체 가입을 권장합니다.
레지오나 심신단체에 가입하여 교회활동과 심신활동에 적극 노력 합니다.
5.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미사후(소성당)
□ 지난주봉헌금: 153,940원 □ 교무금: 518,000원

*신풍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정경이

1. 오늘의 모임: 아브라함회 자모회
 2. 다음주 모임: 애령회(총회합이오니 회원은 물론 상임위원님들 전원 참석 요망) 울뜨레아회, 방지겨삼회
 3. 꾸리아 회합: 9월25일 주일은 추석명절 관계로 9월18일 주일로 앞당겨 회합하오니 착오없이기 바랍니다(미사후)
 4. 축·견진: 오늘 견진성사 받는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 공소미사: 신암공소(오늘 오후)
 6. 추석합동위령미사: 조상님들 위한 위령미사예물은 9월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7. 금주봉사전례: 문수현부부 전례-백강석 저녁-허정운
다음주봉사전례: 김주홍부부 전례-손주상 저녁-강현미
- 지난주봉헌금: 101,000원 □ 교무금: 230,700원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허진
수녀원 33-2578

1. 오늘의 모임: 베드로회, 바오로회, 원사회, 대건안드레아회, 성심회-공식미사후
 2. 다음주 모임: 애령회, 성모회, 빈첸시오아빠울로회
 3. 추석합동 위령미사: 미사예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앞서 세상을 떠난 조상님 영혼을 위하여 한 가정도 빠짐없이 봉헌바랍니다.
 4. 구역모임: 9·10·11구역-12일(월) 저녁8시30분 박윤주(사바나)씨택
 5. 금주청소: 월-중개자의 모후Pr 토-천상의 모후Pr
- 지난주봉헌금: 302,000원 □ 교무금: 230,500원

*요촌

사제관 44-0152 주임신부 황인규
사무실 44-0151 사목회장 김치덕
수녀원 44-0153

1. 오늘의 모임: 대건회 월례회, 구역장·공소회장 연석회
 2. 첫고백: 성모승천축일에 영세하신 형제들 첫고백성사 17일(토) 저녁 8:00
 3. 초·중·고 교리 경시대회: 11일(일) 오후 2:00 성당
 4. 성탄반 예비자교리: 공식미사후, 학생회관
 5. 미사시간 변경: 13일(화)부터 저녁미사 저녁 8:00
 6. 데레사회: 17일(토) 저녁 6:30, 제 1회합실
 7. 율호회: 17일(토) 저녁 8:30 학생회관
 8. 중·고생 성지순례: 18일(일) 학생미사후, 치명자산
 9. 축/견진 245명의 형제·자매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18일(일) 공식미사후 많은 기도바람
- 지난주 봉헌금: 208,170원 □ 교무금: 539,140원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전종복
사무실 43-4236 사목회장 오재천
수녀원

1. 수녀원축성식: 20일(화) 오후3시 1부-미사 2부-축성식 3부-축하연
 2. 성모회: 공식미사후 3. 데레사회, 아브라함회: 차주모임
 4. 반도회: 14일(수) 2구역1반(박진봉매) 15일(목) 2구역2반(김평우매) 16일(금) 3구역1반(황양근매)
 5. 예비자교리: 주일 10시 미사후 성당2층
 6. 청소년 신앙교육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수녀님 인사이동: 박 바울리나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상 바울라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감사헌금: 김창운 5천원
 9. 수녀원 신축헌금: 민정례 13,000원(감사합니다)
 10. 성당대청소: 10시미사후 신자분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103,800원 □ 교무금: 26,000원